

2만명 넘어선 전세사기 피해자...광주·전남 1000명 육박

국토부, 1328명 추가 피해 인정...특별법 시행 1년2개월만 피해자 74% 20~30대 수도권에 집중... '셀프 낙찰' 418명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광주·전남에서도 1000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했다. 특별법 시행 1년 2개월여만에 집계된 피해자 수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중 132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

청을 낸 182명 중 9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85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49명이 됐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18명(1.5%)이다.

전체 신청 가운데 77.5%가 가결되고, 11.2%(303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금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7.9%(2119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69건 이뤄졌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미 3억원 이하였

으며, 절반이 넘는 65%의 피해자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26.5%, 경기 21.0%, 인천 13.1% 등이다.

수도권 외에는 대전(13.2%)과 부산(10.7%)의 피해자가 많았다.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많은 738명의 피해자(3.5%)가 발생했으며, 광주도 255명(전국 11번째·1.2%)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전국 피해자의 74%는 20~30대였으며, 30대 피해자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 27.5%, 40대 14.8%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31.4%)과 오피스텔(20.8%)에 거주하고 있다. 다가구(18.1%)와 아파트(14.4%) 피해자 비중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 중 우선매수권을 활용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사람은 418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소방차 지나가면 비켜주세요” 22일 오후 광주 북구 운암시장 앞에서 2024년 을지연습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소방차량 길타주기 훈련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농협광주본부, 산단근로자 아침밥 챙긴다

조식 지원 위한 상생협력 협약
농협 쌀 20kg 100포대 제공
근로자 건강증진·쌀 소비 촉진

광주시와 농협이 산업단지 근로자의 아침밥을 챙기기에 나선다.

광주시와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2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산단근로자 조식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쌀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

을 겪는 농업·농촌을 지원하고 근로자에게 건강한 아침식사와 쌀 소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농협광주본부는 광주에서 생산된 농협 쌀 20kg 100포대를 근로자 조식지원 사업에 제공하고, 광주시는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이번 협약으로 근로자의 건강은 물론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농가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조식지원사업은 시종가격 대비 50% 정도 저렴한 2000~3000원짜리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 간편 아침식사를 판매한다.

해남산단과 첨단산단 조식지원센터에서 판매 중이다.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농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근로여건 개선 등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日 후쿠시마 원전사고 13년...핵연료 잔해 반출 시도 실패

준비 과정 도중 실수 발견... '3g 미만' 채취 위한 준비작업 중단
13호기 880t 잔해 추정...지연시 오염수 방류 기간 길어질 수도

도쿄전력은 22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원자로에 남은 핵연료 잔해(데브리) 반출을 시도했으나, 준비 과정에서 작업을 중단했다고 교도통신과 NHK 방송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이날 오전 7시 24분께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의 핵연료 잔해 시험 채취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작업자가 핵연료 잔해 반출 장치를 밀어 넣는 파이프 설치와 관련해 실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 오전 8시 53분께 준비작업을 중단했다.

교도통신은 “3g 핵연료 잔해 채취는 스타트 라인 바로 앞에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도쿄전력은 이날 작업을 재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며 23일 이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고 원전 폐기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으로 여겨지는 핵연료 잔해 반출 시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도쿄전력은 이를 위해 약 22m 길이의 신축형 파이프 장치를 새로 개발했으며 파이프 끝에 부착한 손톱 형태 장치를 이용해 핵연료 잔해를 꺼내게 된다. 신축형 파이프 장치가 핵연료 잔해에 도달하는 데 일주일가량, 반출 완료까지는 총 2주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채취하는 핵연료 잔해는 3g 미만에 불과하다. 많은 양의 핵연료 잔해를 반출하면 작업자가 피폭될 우려가 있어 소량을 꺼낼 수밖에 없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도쿄전력은 반출한 핵연료 잔해를 후쿠시마현 남쪽 이바라키현 소재 시설로 옮겨 성분과 정도 등

을 분석한 뒤 이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반출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에는 880t가량의 핵연료 잔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잔해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온도가 높아진 핵연료가 녹아서 떨어지는 노심용융(멜트다운) 사고로 발생했다.

도쿄전력은 핵연료 잔해 반출을 당초 2021년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장비 문제 등으로 세 차례 연기가 3년간가 늦춰졌다.

잔해를 모두 꺼내는 공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이번에도 소량 채취에 성공하더라도 향후 원전 폐기까지 작업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2051년께 후쿠시마 제1원전을 폐기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핵연료 반출 작업이 지연되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아울러 핵연료 잔해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사고 원자로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로 인해 오염수 추가 발생이 불가피하고 지난해 8월 시작한 해양 방류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20년 숙원’ 완도~강진 고속도로 뚫린다

기재부 예타 통과...1조5965억 투입 2026년 준공 예정

완도-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20년 이상 지역민들이 요청해온 숙원 사업으로, 정부를 상대로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해온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김윤성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완도-강진 고속도로의 경우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된 국책사업으로, 강진 선전에서 해남 남창을 잇는 38.9km 구간에 1조 5965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완도에서 강진까지 가는 데 평소보다 21분(64분→43분) 단축돼 경제, 의

료, 관광 등 분야에서 전남 서남부권에 변화가 예상된다.

애초 완도-광주 고속도로는 한 번에 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가, 경제성(B/C)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계적으로 추진됐다.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9월 열린 재정사업평가 분과 위원회에 해남-완도 구간과 함께 참석해 완도-강진 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예타 통과에 총력을 쏟았다.

1단계 구간인 광주-강진(51.1km)의 경우 지난 2017년 착공, 현재 71%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 준공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완도-광주 고속도로의 2단계 구간인 완도-강진 구간이 조기 개통, 전남 서남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해리스, 지난달 2천700억원 모금...트럼프의 4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이후 지지층 결집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달 선거자금 모금 면에서도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해리스 캠프가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이날 보고한 7월 선거자금 모금액은 2억400만 달러(약 2721억 원)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캠프가 보고한 같은 달 선거자금 모금액 480만 달러(약 640억 원)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같은 격차는 바이든 대통령의 중도하차 이후 캠프에 쏟아진 민주당 지지자들의 기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해리스 캠프는 지난 달 21일 하루에만 2800만 달러(약 373억 원)를 모금한 데 이어 23일까지 약 6000만 달러(약 800억 원)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 발전설비용량: 3.5MW
- 사업개시예정일: 2024. 4
- 사업운영기간 및 방법: 2024. 08. 22 ~ 2024. 08. 29까지 전남 목포시 미항로 191-4 (2층)

5. 발전소명	6. 신장인	7. 용량(MW)	8. 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나주그린1호 태양광발전소	강성남	99.40	(1,145㎡/29,438㎡)
2. 나주그린2호 태양광발전소	김순남	99.40	(1,030㎡/29,438㎡)
3. 나주그린3호 태양광발전소	백성태	99.40	(887㎡/29,438㎡)
4. 나주그린4호 태양광발전소	이승재	99.40	(938㎡/29,438㎡)
5. 나주그린5호 태양광발전소	양광식	99.40	(1,117㎡/29,438㎡)
6. 나주그린6호 태양광발전소	김진구	99.40	(997㎡/29,438㎡)
7. 나주그린7호 태양광발전소	박영성	99.40	(781㎡/29,438㎡)
8. 나주그린8호 태양광발전소	임현식	99.40	(790㎡/29,438㎡)
9. 나주그린9호 태양광발전소	김재민	99.40	(743㎡/29,438㎡)
10. 나주그린10호 태양광발전소	강소희	99.40	(751㎡/29,438㎡)
11. 나주그린11호 태양광발전소	하은필	99.40	(793㎡/29,438㎡)
12. 나주그린12호 태양광발전소	강준길	497.0	(4146㎡/29,438㎡)
13. 나주그린17호 태양광발전소	정형은	99.40	(1150㎡/29,438㎡)
14. 나주그린18호 태양광발전소	임재자	99.40	(966㎡/29,438㎡)
15. 나주그린19호 태양광발전소	김순선	99.40	(786㎡/29,438㎡)
16. 나주그린20호 태양광발전소	이요근	99.40	(773㎡/29,438㎡)
17. 나주그린21호 태양광발전소	이세리	99.40	(777㎡/29,438㎡)
18. 나주그린22호 태양광발전소	변희철	99.40	(788㎡/29,438㎡)
19. 나주그린23호 태양광발전소	전승영	99.40	(744㎡/29,438㎡)
20. 나주그린24호 태양광발전소	임영희	99.40	(766㎡/29,438㎡)
21. 나주그린25호 태양광발전소	전상조	99.40	(741㎡/29,438㎡)
22. 나주그린26호 태양광발전소	황성민	99.40	(831㎡/29,438㎡)
23. 나주그린27호 태양광발전소	박선진	99.40	(738㎡/29,438㎡)
24. 나주그린28호 태양광발전소	이경선	99.40	(740㎡/29,438㎡)
25. 나주그린29호 태양광발전소	김중현	99.40	(738㎡/29,438㎡)
26. 나주그린30호 태양광발전소	전유정	99.40	(770㎡/29,438㎡)
27. 나주그린31호 태양광발전소	송계수	99.40	(725㎡/29,438㎡)
28. 나주그린32호 태양광발전소	전승우	99.40	(756㎡/29,438㎡)
29. 나주그린33호 태양광발전소	영정숙	99.40	(799㎡/29,438㎡)
30. 나주그린34호 태양광발전소	김순란	99.40	(740㎡/29,438㎡)
31. 나주그린35호 태양광발전소	이재은	99.40	(1063㎡/29,438㎡)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 발전설비용량: 1.1MW
- 사업개시예정일: 2024. 09
- 사업운영기간: 2024. 09 ~ 2048. 11(예정)
-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2024. 08. 22 ~ 2024. 08. 29까지 전남 목포시 미항로 191-4 (2층)

5. 발전소명	6. 신장인	7. 용량(MW)	8. 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화성그린1호 태양광발전소	권태현	99.4	1516㎡ / 10,873㎡
2. 화성그린2호 태양광발전소	최광일	198.8	2838㎡ / 10,873㎡
3. 화성그린3호 태양광발전소	김순호	99.4	1150㎡ / 10,873㎡
4. 화성그린4호 태양광발전소	김은재	99.4	887㎡ / 10,873㎡
5. 화성그린5호 태양광발전소	전현호	99.4	10-2
6. 화성그린6호 태양광발전소	송계수	99.4	16-2
7. 화성그린7호 태양광발전소	김진구	99.4	18
8. 화성그린8호 태양광발전소	김중현	99.4	19-3
9. 화성그린9호 태양광발전소	김준원	99.4	19
10. 화성그린10호 태양광발전소	김현우	99.4	881㎡ / 10,873㎡
11. 화성그린11호 태양광발전소	김현우	99.4	1176㎡ / 10,873㎡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 발전설비용량: 0.7MW
- 사업개시예정일: 2024. 08
- 사업운영기간: 2024. 08 ~ 2048. 08(예정)
-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2024. 08. 22 ~ 2024. 08. 29까지 전남 목포시 미항로 191-4 (2층)

5. 발전소명	6. 신장인	7. 용량(MW)	8. 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동곡호 태양광발전소	김자영	99.4	1480㎡ / 18,201㎡
2. 동곡호 태양광발전소	김자영	99.4	919㎡ / 18,201㎡
3. 동곡호 태양광발전소	김자영	99.4	920㎡ / 18,201㎡
4. 동곡호 태양광발전소	김자영	99.4	976㎡ / 18,201㎡
5. 동곡호 태양광발전소	박지아	99.4	982㎡ / 18,201㎡
6. 동곡호 태양광발전소	김자영	99.4	983㎡ / 18,201㎡
7. 동곡호 태양광발전소	김지훈	99.4	1005㎡ / 18,201㎡

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망 배남순(450806-1XXXXXX)
최후추수: 광주 서구 하남대로710번길 5, 602동 902호(동천동, 동천마을6단지아파트)

피상속인 망 배남순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4년 8월 22일 2024년 8월 13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거나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8월 23일

상속인: 유현숙(510630-2XXXXXX)
광주 서구 하남대로710번길 5, 602동 902호(동천동, 동천마을6단지아파트)

신고기간: 2024. 8. 23. ~ 2024. 11. 2.
채권신고처: 상속인 유현숙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망 박동영(570817-1XXXXXX)
최후추수: 광주 서구 삼부대로117번길 20, 201호(농성동)

피상속인 망 박동영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4년 8월 22일 2024년 8월 13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거나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8월 23일

상속인: 박상현(920229-1XXXXXX)
충천시 공서로 455, 1425호 (근화동, 춘천-타워)

신고기간: 2024. 8. 23. ~ 2024. 11. 2.
채권신고처: 상속인 박상현의 주소

先州日報 지국안내

북구	
• 동광	266-1920
• 문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안	222-8171
• 양산	571-7658
• 오치	266-7601
• 홍봉	433-1503
• 우산	433-1503

동구	
• 남광	673-6836
• 남명	222-9054
• 동부	225-6001
• 중암	222-9054
• 중창	222-8171

남구	
• 남부	673-6836
• 백운	651-1833
• 봉신	673-6836
• 송하	675-6605
• 신월	671-7276

서구	
• 광천	382-5788
• 상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천	376-7153
• 치평	376-6511
• 봉암	603-0311
• 화정	369-1625

광산구	
• 윤남	952-1687
• 윤곡	959-1920
• 철담	973-2901
• 하남	955-0450
• 광산	944-044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특자와 함께 읽는 872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계간

광고문의 227-9600 | 신문구독 220-0551 | 예행구독 220-0550